

제 목	국 문	PWI의 신뢰도 및 타당도		
	영 문	Reliability and validity of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 채 용 · 이 종 영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Lee chae yong · Lee jong young dept. of preventive me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분 야	산 업 의 학		발 표 자	이 채 용(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5 년 11 월			

1. 연구 목적

최근 개발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설문지인 PWI(psychosocial wellbeing index)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려 한다.

2. 연구 방법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달 간격으로 두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조사에서는 PWI만을 배부하였는데, 134명이 회수되었다. 2차조사에서는 1차조사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PWI와 SCL-90R을 같이 배부하였는데, 94명이 회수되어 70%의 회수율을 보였다. PWI는 장세진(1993)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SCL-90R은 중앙적성출판사에서 1994년에 제작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신뢰도는 내적일치도와 더불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SCL-90R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타당도는 SCL-90R의 성적을 기준으로 위험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PWI의 총점을 비교하였고, 탐색적 인자분석을 통해 인자구조의 안정성을 보았으며, 알려진 인자구조를 바탕으로 확증적 인자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를 구하였다.

3. 연구결과

1) PWI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하였는데 1차 설문에서 0.54, 2차 설문에서 0.62의 값을 보였다.

2)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52($p=0.0001$)이었다. 1차설문의 평균점수는 50.7(± 6.4), 2차 설문의 평균점수는 48.7(± 7.6)이었다.

3) PWI 2차 설문과 SCL-90R의 전반적 지수인 GSI, PST, PSDI의 상관계수는 각각 0.31, 0.28, 0.24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1차설문과는 0.22, 0.20, 0.19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GSI의 상관계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CL-90R의 9개 증상차원들과의 상관분석에서, 2차설문은 신체화, 대인 민감성, 불안, 적대감, 공포, 편집증, 정신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1차설문은 대인 민감성, 불안, 적대감, 편집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였다.

4) SCL-90R의 각 증상차원에서 T점수가 65점이상인 사람들을 위험군으로 그 미만을 대조군으로 하였는데, 위험군은 7명으로 7.1%를 차지하였다. 위험군과 대조군의 2차설문의 PWI 총점은 각각 55.71(± 4.96), 48.14(± 7.47)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1차설문은 13개의 인자가 68.8%, 2차설문은 11개의 인자가 71.2%의 변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자의 수를 4개로 지정하고 varimax rotation을 통해 인자를 추출하여 각 인자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일치율을 구한 결과, 1차와 2차는 0.126의 감마계수를 보였으나, 장세진의 인자구조와는 1차설문이 -0.093, 2차설문이 -0.214의 감마계수를 보였다. 첫번째 인자는 거의 일치하였으나, 세번째 인자는 거의 일치하지 않았다.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장세진의 4가지 인자구조, 스트레스라는 단일 인자구조, 이번의 탐색적 인자분석 결과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GFI와 AGFI모두 0.5에서 0.6정도를 보였다. 그외 χ^2 값이나 RMS도 적합성이 낮은 값을 보였다.